

2022 Octo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9월 동향

9월 FOMC 이후 연준 인플레이션 대응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 금리인상 기조 반영과 영국 감세안 발표 파장에 따른 글로벌 금리 폭등세에 동조화되며 4.3% 수준까지 상승

국내 8월 CPI의 5%대 하락,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불확실성 우려 반영 등이 금리 하락 출발에 영향. 다만, 호주 중앙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 기조 등 글로벌 금리 상승은 하단을 제한한 요인

미 8월 CPI의 시장 예상 상회 속 울트라 스텝 가능성 점증과 대내적 통화 당국의 적극적 인플레이션 대응 기조 시사 등으로 4%대에 근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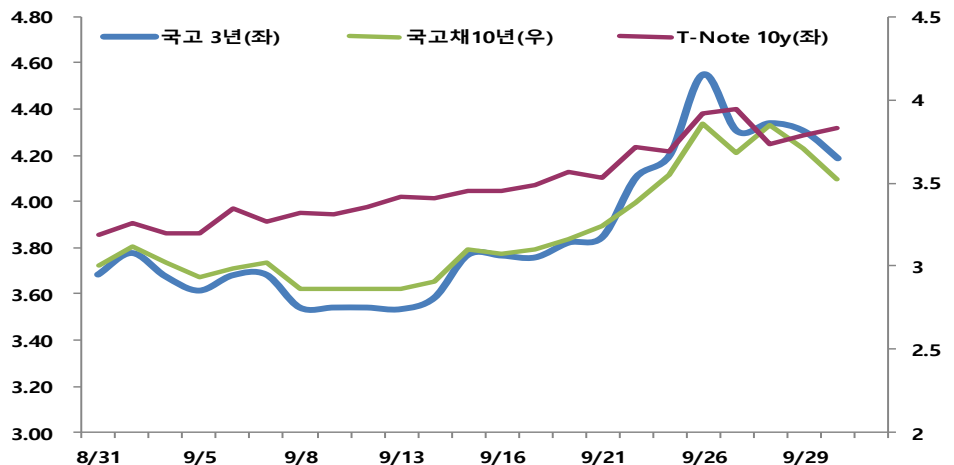
9월 FOMC 자이언트 스텝 단행 후, 시장 예상보다 강한 점도표 상향 및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연쇄적 금리인상 영향 등이 금리 큰 폭 상승에 영향

- 9월 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하락과 중국, 유럽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연준 베이지북에서 7월 이후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던 영향 반영 등으로 하락. 그러나 호주 빅스텝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가 반영된 점은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모습
 - 월 초, 대내적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하락 양상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및 대외적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 출발
 - 다만, 호주 중앙은행의 빅스텝 금리인상 속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와 미 ISM 지표 개선에 의한 연준 긴축 강화 가능성 등으로 하단은 3.5%수준에서 제한된 양상
- 중반, 미국 8월 CPI 시장 예상 8.1%를 넘어서며 울트라 스텝 가능성과 대내적 행정부와 통화 당국 적극적 인플레이션 대응 기조 반영에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3.8%대 상승 전환
 - 월 중반, 미 8월 CPI가 8.3%로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 2개월 연속 감소에도 시장 예상 8.1% 상회한 가운데 근원CPI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연준 울트라 스텝 가능성 점증으로 국고채금리 상승 전환
 - 여기에 대내적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대통령 발언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적극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시사한 금통위 스탠스도 국고채 금리 상승을 견인
- 후반, 9월 FOMC에서 75bp 금리인상 단행 후, 시장 예상보다 강한 점도표 조정 등 초매파적 연준 기조 반영 속 주요국 중앙은행들 연쇄적 금리인상 영향으로 4.3% 수준까지 급등
 - 후반, 9월 FOMC에서 시장 예상 부합한 자이언트 스텝 금리 결정에도 연준의 2% 목표 인플레이션 대응 언급과 상향된 점도표 결과 등이 초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국고채 금리 4%대 상향
 - 이어 주요 중앙 은행들의 연쇄적 금리인상 속에 한은의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전제조건 변경 시사 등에 의한 빅스텝 가능성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4% 중반 까지 상승 모멘텀 강화 속에 마감

9월 평균

국고채(3년): 3.87%
T-Note(10년): 3.5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0월 전망

10월 FOMC 부재 속 연준위원들의 초매파적 언급 등이 미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하며 국고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한은 빅스텝 기조 전환 기대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3.13	3.45	4.3 ^(F)

10월 연준 통화정책회의 부재 속에 9월 CPI의 향방이 금리 방향성의 핵심으로 보임. 큰 폭의 물가 감소세 없을 시 연준위원들의 초 매파적 스탠스 지속이 예상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유럽 주요국가들에 대해서도 긴축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글로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10월 국고채(3Y) 금리는 4.1%~4.3% 예상

- 10월 Fed FOMC 회의 공백 속 2%물가 감소 또는 큰 폭 감소 속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9월 FOMC에서의 매파적 의지가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0월 Fed의 FOMC회의 공백 속에 9월 CPI가 2% 목표 수준 도달 내지 큰 폭의 감소 속도를 보일 것 인지가 연준 스탠스에 대한 시장 기대에 의해 국내외 금리 방향성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
 - 9월 미 CPI는 3개월 연속 감소세 보이겠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과 큰 갭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스탠스가 유지될 전망이며, 이 영향이 국내외 금리 상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럽 경제의 하강 위험에도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ECB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긴축 기조 요인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칠 전망. 하지만, 최근 영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영국 국채 시장 불확실성 감소 요인 등은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럽 경기 불확실성 확대 국면 속에서도 최근 높은 물가 상승에 따라 ECB를 비롯, 유럽 주요국가들 빠른 긴축 기조 속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연동 가능성은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최근 영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국면에 대한 영국 국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의해 글로벌 금리의 상단이 제한된 영국 등은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제어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연준이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점도표를 상향함에 따른 초 강성 매파에 한은도 전제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제시하였기에 10월 빅스텝 금리인상 결정이 확정적이 될 측면이 통화정책상의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은이 이미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 베이비스텝으로 가이드스를 제시했으나, 9월 FOMC 이후 연준의 정책에 따른 전제조건 변화를 제시함에 따라 국내 물가 상황과 대외 조건을 감안할 때, 빅스텝 이상의 통화정책 결정이 예상되는 점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풀리시 믹스 차원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 표명 등이 강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하겠지만, 현 대내외 여건상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단 제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폭의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 부재 시 9월 FOMC에서의 연준 매파 기조 강화가 예상 · 미국 외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상 기조 · 한은의 전제 조건 변경에 따른 빅스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초반 영국 국채시장 불확실성 감소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9월 동향

미국내 인플레이션 감소 추세가 확연하지 않은 국면이 반영되며 9월 FOMC이후 연준의 초강성 매파 성향 재확인 등으로 달러인덱스 114 수준 상회 속에 달러/원 환율도 1,400원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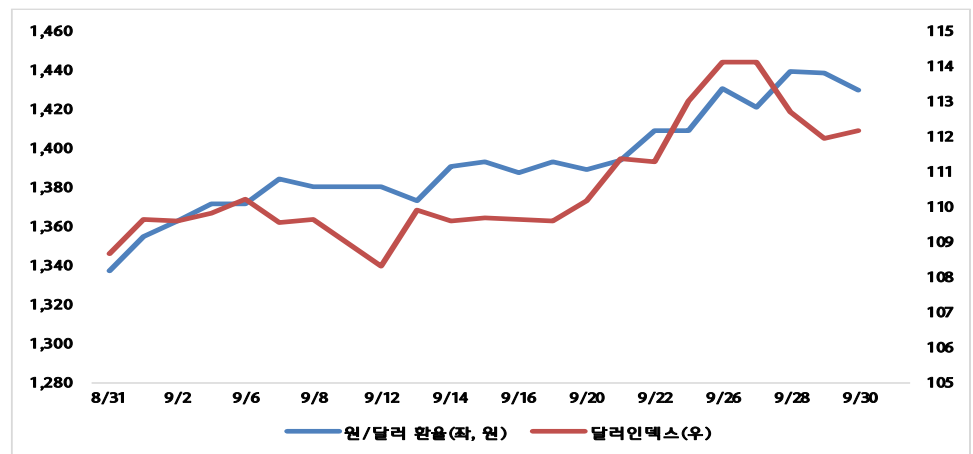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금리인상 기조 지속 하에 대내적 경제체질 약화 등이 원화 약세 견인. 반면 ECB의 자이언트 스텝 영향은 달러 강세 기조 일시 약화 요인으로 작용

미 8월 CPI의 시장예상을 상회한 8.3% 수준에 따른 연준의 울트라 스텝 인상 가능성 등으로 환율은 1,390원대까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등이 상단 제한

9월 FOMC에서 향후 보다 높은 수준 금리인상 예고 속에 경기 불확실성이 큰 주요국 중심 통화 약세와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으로 환율은 연중 고점을 경신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형국

- 월초, 미 연준 위원들 매파적 금리인상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강달러를 견인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금리인상 등에 의한 경기 하강 위험 확대 등으로 상승 출발
 - 월초, 연준내 주요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매파적 발언이 글로벌 금리 상승에 탄력을 더한 가운데 달러 추가 강세 흐름을 강화 시키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
 - 이후, ECB 자이언트 스텝 단행이 일시 강달러 조정에 영향 미쳤으나, 이어 경기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점증 속 대내적 7월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등 경제체질 약화 우려 반영되며 1,380원대 까지 상승
- 월 중반, 미 8월 CPI가 2개월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을 상회함에 따른 연준의 울트라 스텝 가능성으로 1,390원대까지 상승 후, 외환 당국의 강한 개입 경계감 등으로 상단 제한된 양상
 - 중반, 미국 8월 CPI가 전년대비 8.3%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장예상 8.1%에 못미친 가운데 9월 FOMC에서 100bp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환율은 1,390원대를 상향
 - 하지만,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 경계감에 1,400원 상향이 저지되었지만, 미 국채 수익률 상승과 위안화의 7위안 상향 등 약세 움직임 반영 등으로 1,399원까지 고점을 높여가는 국면을 보임
- 후반,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결정 후, 향후 회의에서의 더 높은 수준 금리인상 예고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주요국 통화 약세 속 파운드 가치 급락 영향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 받으며 환율은 1,430원대의 고점을 형성
 - 후반, 연준내 매파 성향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9월 FOMC는 시장 예상 부합 75bp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이어진 의장 기자회견에서 초 매파 기조 재확인과 점도표 상향 등으로 환율 상승 추세 지속
 - 이후, 영국 감세안에 따른 파운드 가치 폭락과 유럽 가스관 사고 등 유로 약세의 추가적 달러 강세 견인에 환율은 1,439.9원까지 연고점 재경신 후, 영국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으로 1,430원대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9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95.1
9월말 달러/원 환율 : 1,430.2

10 월 전망

연준의 초강성 매파 지속이 연준위원들 연설을 통해 이어질 전망 속에 유로존, 중국 등의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이 달러 초강세 지지하며 환율 상승 다소 이어질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59	1,340.8	1,420 ^(F)

연준의 9월 FOMC 이후 보다 강화된 긴축 가능성 속에 11월 FOMC 이전까지도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 기조 지속이 달러 초강세를 지지하게 할 전망

- 미국 CPI는 연속 감소세가 예상. 다만 그 폭이 크지 않을 전망에 따라 11월 FOMC 개최 시점까지 연준 주요 위원들의 2% 인플레이션 대응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75bp 인상 가능성 등이 달러 강세 흐름을 견인하며 환율의 점진적 상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9월 CPI지표는 연속 3개월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 폭이 소폭에 그치면서 연준의 기존 통화정책 경로에 변화를 주기에 역부족이 될 것으로 판단
 - 10월FOMC 부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은 연준 위원들의 기존 인플레이션 대응 속도에 변화 없이 강성 매파 성향을 지속시키게 할 요인으로 보임에 따라 핵심적 달러 강세 견인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유로존과 중국의 통화 약세 영국 지속하는 가운데 영국 금융시장 혼란 여파 단기 지속 가능성 등이 달러 초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쟁에 의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 속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여건 유지될 전망. 여기에 영국 파운드 가치 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강화 부각 이슈 지속이 다소 이어질 전망도 달러 초강세를 유지하게 할 요인으로 판단
 -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가스관 파괴 이슈 등에 따른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 최근 러시아 동원령에 의한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이 유로화 약세 견인하는 가운데 달러 강세 지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 경제의 급격한 하락 국면 속 위안화 약세 여건 유지와 영국 금융시장 혼란 수습에도 그 영향이 다소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 등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0월 달러/원 환율
1,410 ~ 1,450원 예상

- 글로벌 경제권역의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세계 교역 감소 속 대중, 글로벌 무역적자 연속 흐름과 수출 부진 등 경제 체질 약화 요인 속, 한은 빅스텝 전망에도 최근 대외적 강달러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예상 등으로 원화 약세는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전망
 - 글로벌 교역 규모가 전월 대비 2.8%(7월 기준 WSJ 집계) 감소하며 국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중국 및 전체 무역적자가 지속되며 대내적 달러 수급 체질이 약화하는 국면이 10월에도 이어질 전망
 - 이러한 경제체질 약화 국면 속 대외 강달러에 대한 한은 10월 빅스텝 결정 전망이 다소 원화 약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보이나, 연준의 강도높은 긴축에 의한 달러 방향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시장 인식이 다소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 약세는 점진적이지만 다소 이어질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FOMC 이후 CPI 감소폭이 제한적일 경우 연준 위원들의 2% 대응 지속 강화 발언 · 유럽 천연 가스 사고 여파에 의한 유로 약세 등 주요 통화들의 달러 강세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대외 통화정책 전제 조건 변경에 따른 빅스텝 전망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10월 연준 통화정책 부재 속 주요 위원들 강한 매파성향 지속과 BOI의 초완화 기조로 145엔대 진입 예상. 반면, 최근 원화의 대내적 경제체질 약화 부각에 상대적 약세 예상으로 995원 전후 흐름 예상

9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3.2
9월 엔/원 평균환율 : 974.0

10월 엔/원 예상범위 : 985~1,005원

- (엔화동향)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 지속과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폐쇄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한 영향 등으로 약세 출발. 중반, 8월 미 CPI 8.3%의 시장 예상 상회 속 연준 울트라스텝 가능성 반영 등으로 약세 흐름 강화되며 140엔 돌파된 후, 일본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 등이 상단 제한한 형국. 후반, FOMC의 초매파적 정책 결정 속에 BOI의 초완화 기조 등 차별화된 통화정책 등으로 145엔 상향 후, BOI 전격적 실개입 단행으로 큰 폭 하락 후 144엔 중반 흐름
- (엔/원 전망) BOI의 전격 실개입 단행에도 환율 안정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장 인식과 연준 초강경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 재확인 속 수익률 곡선 통제 지속 등 BOI의 초완화 기조의 통화정책 차별화 요인 등이 145엔 상향을 가능하게 할 전망. 여기에 유로존, 영국, 중국 통화 약세 지속 기조에 의한 달러 강세 지지 요인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엔/원 환율은 달러 초강세 속에 초완화적 기조의 엔화 방향성에도 원화의 대내적 체질 약화 부각에 따른 상대적 약세 강화 속, 원화가 1,450원을 상향 할 경우 985~1,005원 흐름 예상
 - 9월중 연준 초 매파 속 BOI 정책 영향 등으로 엔화의 초 약세 기조에 따라 전격적 실개입을 단행했지만, 미-일 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 반영 등으로 엔화는 145엔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상기의 엔화 약세 기조 지속에도 엔/원 환율은 최근 원화의 대외적 영향 뿐 아니라 대내적 경제체질 약화 요인의 부각에 따라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 있을 전망에 985~1,005원 흐름 예상

유로/원 전망

러시아 동원령과 천연가스관 사고 여파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 확대 및 영국 파운드 가치 급락 영향 전이 등이 유로화의 전반적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9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0.9899
9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80.8

10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70~1,415원

- (유로화 동향)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폐쇄 이슈로 패리티 환율 크게 하회 출발. 이어 높은 역내 물가 대응을 위한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에도 연준 정책에 뒤쳐진 영향으로 약세 지속. 중반, 미 8월 CPI의 시장 예상 상회에 따른 연준 울트라 스텝 가능성 반영으로 약세 지속 후, 후반 들어,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단행했지만, 초강성 매파적 점도표 상향 속, 파운드 급락 영향과 러시아 동원령 등 지정학적 위험 반영 등으로 0.95달러대까지 하락
- (유로/원 전망) 동유럽 지정학 리스크 확산 우려 속에 유럽으로의 천연가스관 사고 여파에 따른 가스 가격 급등으로 유럽 경기침체 우려가 한층 부각된 측면과 파운드 가치 하락에 유로 가치 연동 및 초매파적 연준 스탠스에 의한 강달러 반영 등으로 0.95달러 하회 전망
 - 최근 영국 금융시장 혼란의 유로 약세 견인 이슈와 천연가스 이슈에 따른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유로화는 0.95달러를 하회하는 약세 국면 이어질 전망
 - 유로/원 환율은 최근 경제체질 약화 등 상대적 원화 약세 부각 요인 우위로 1,400원 전후 흐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안 무역수지 (-\$9470M) 수출 YoY (6.6%) 수입 YoY (28.2%)
<p>*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지, ()안은 이전치</p>						
2	3 미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51.8) 일 자동차판매 YoY (-13.3%) 유 합성PMI 서비스업PMI	4 미 제조업수주(-1.0%) 일 도쿄 CPI (전년대비, 2.9%) 유 S&P Global Eurozone Manufacturing PMI (48.5) PPI 전년비 (37.9%) 호 RBA 목표금리 (2.35%)	5 안 CPI 근원 YoY (4.4%) 미 무역수지(-\$70.7B)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49.3) 유 S&P Global Eurozone Services PMI (48.9)	6 안 외환보유액 (\$436.43B) 유 소매판매 YoY (-0.9%)	7 안 BoP 경상수지 (\$1088.7M) 은행 가계대출 총 (KR1060.8t) 미 실업률 (3.7%) 도매무역판매 MoM (-1.4%) 중 외환보유액 (\$3054.88b) 일 가계 소비지출 전년비 (3.4%)	8
9	10	11 미 월간 재정수지(-\$219.6B) 일 BoP 경상수지 (¥229.0b)	12 안 BoK 7일 REPO 금리 (2.5%) 미 PPI 최종수요 YoY (8.7%) PPI 최종수요 MoM (-0.1%) 유 산업생산 WDA YoY (-2.4%) 영 광공업생산 YoY (1.1%) Monthly GDP (MoM) (0.2%)	13 FOMC 회의록 미 FOMC 회의록 CPI 전년대비 (8.3%) 주간 평균 실질 소득 YoY (-3.4%) 일 PPI YoY (9.0%)	14 금통위 안 수출물가지수 YoY (13.4%)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22.9%) 실업률 SA (2.5%) 미 수출물가지수 YoY (10.8%)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7.8%) 기업채고 (0.6%) 중 PPI 전년비 (2.3%) 무역수지 (\$79.39b)	15
16	17 미 제조업지수(뉴욕주) (-1.5) 일 3차산업지수 MoM (-0.6%)	18 안 광의통화(M2, 평잔) 미 광공업생산 MoM (-0.2%) 중 광공업생산 YoY (4.2%) GDP(전년동기대비) (0.4%)	19 유 건설 생산 YoY (1.5%) CPI (전년대비) (9.1%) 영 소매물가지수 (345.2) CPI (전년대비) (9.9%)	20 미 경기선행지수(-0.3%) 일 무역수지 (-¥2817.3b) 유 ECB 경상수지 SA (19.9b)	21 안 PPI 전년비 (8.4%) 일 전국 CPI (전년대비) (3.0%) 유 국제/GDP 비율 (95.6%) 영 소매판매 (자동차연료 포함) YoY (-5.4%)	22
23	24 미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영 S&P Global/CIPS UK Manufacturing PMI S&P Global/CIPS UK Services PMI	25 안 소비자심리지수 (91.4)	26 안 기업경기실사지수 일 PPI 서비스 YoY (1.9%) 호 CPI 철사 평균 YoY (4.9%)	27 ECB 통화정책회의 안 3분기 GDP 증가율 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SA) 유 ECB 주요 채용자 금리 (1.25%) ECB 마진 대출 퍼실리티 (1.5%) ECB 단기수신금리 (0.75%) 중 광업기업이익 연초대비 전년비 (-2.1%)	28 BOJ 통화정책회의 미 고용비용지수 (1.3%) 호 PPI 전년비 (5.6%)	29
30	31 미 시카고 PMI 유 GDP SA 전년대비 (4.1%)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